



우량菌株의 개발로 産業生産性 높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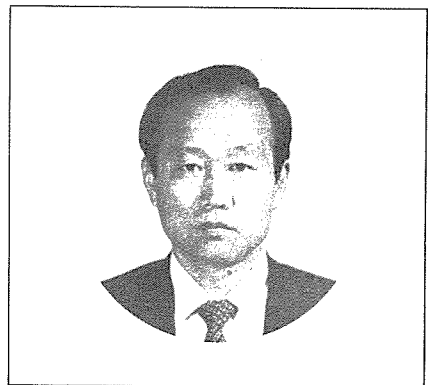
우수인력양성으로 研究활성화 시켜야

『菌學은 應用面에서 응용가치가 상당히 많읍니다. 우리는 옛부터 여러가지 醬을 담가 먹었으며 자연생버섯도 食用되는 것을 가려 먹어 왔지요. 근래에 와서는 버섯의 인공재배는 물론 의약품 제조, 유전공학적인 측면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어 이 분야의 연구가 새로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韓國菌學會 朴容煥회장(농진청 농업기술 연구소 菌茸과장)은 菌學은 균류의 분류를 취급할 뿐만아니라 생물학, 의학, 약학, 농학 및 식품생산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체계화된 학문이라고 설명한다.

朴회장은은 균에 관한 연구는 크게 毒性, 工業用, 醫學用, 食用 등으로 구분 실시되고 있는데 버섯류의 성분에서부터 약효 및 독성연구, 각종식용버섯의 재배법 개발, 농작물에 기생하는 식물병균의 예방과 박멸, 인체에 피부병등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진균의 분리와 치료연구, 의약품과 식품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곰팡이와 효모의 분리와 발효법의 연구등 실로 다양하다고 소개한다. 특히 의학, 농학, 공학등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응용과학의 기초과학으로서 이용범위가 무한하다고.

또한 곰팡이를 이용한 산업은 1929년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로부터 페니실린을 얻어내는데 성공함으로써 발효공업은 획기적으로 공업화하게 되었고 그 이후 항생물질, 효소 기타 화학제품의 생산과 식품공업 및 사료·농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발전, 이용되고 있다는 것.



朴容煥 회장

朴회장은 우리나라에서는 醬油, 酒精, 효소, 의약품, 당류, 유기산 등을 생산하는 등 점차 산업적 가치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들 곰팡이를 이용한 공업은 산업적 측면에서 볼 때 발효공업의 일환으로 두뇌집약 내지 기술집약산업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현실로 볼 때 산업생산성이 높은 균주의 개발이나 질소원을 자원화 할 수 있는 균주 또는 폐기물을 再자원화 할 수 있는 균주의 개발이 곰팡이 연구의 과제이지요』 朴회장은 이와 함께 선진국에서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菌根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균근균은 식물의 뿌리에 공생하여 무기물이나 비타민을 공급해 주는 균으로 양분이 적은 땅에서도 식물이 잘 자랄수 있

게 해주므로 이를 재생하거나 증식시키는 방향으로의 연구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버섯의 인공재배는 생산성뿐만 아니라 경제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책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수출전망은 상당히 밝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재배기술에 대한 연구가 소홀해 표고버섯 등의 배재기술은 타버섯 기술에 비해 많이 뒤져 있는 편이지요. 따라서 버섯의 재배기술을 향상시키고 생산량을 대폭 늘린다면 앞으로의 장래는 상당히 밝습니다.』 朴회장은 최근 느타리버섯을 종이가 다른 것끼리 세포용함을 시켜 포자없는 느타리버섯을 개발해 내는데 성공함으로써 버섯연구에 커다란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금년안에 일부농가를 선정해서 실증시험을 거쳐 좋은 결과가 나오는대로 대량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시책으로 적극 밀고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연구들을 뒷받침해 줄 연구인력의 부족으로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우수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우리 과학기술계 전반에 관련된 문제지만 특히 우리 균학분야는 人力양성이 급선무입니다.』

대학에서 이 분야를 가르치기 시작한게 불과 10년 남짓으로 학문적인 배경이 얇아 자연스럽게 이 분야의 종사자 또한 많지않다고 말하는 朴회장은 십여년전에 비해 많은 학생들이 이 분야에 관한 공부를 계속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태부족인 상태이므로 보다 많은 연구비를 지원 하는 등 정책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유도시책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이게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朴회장은 미국 균학회는 1931년에 창설돼 55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日本만해도 각 縣마다 학회 지부가 설치돼 있을 정도로 학회활동이 활발할 뿐더러 버섯만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단기 대학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73년도에야 학회가 설립돼 그야말로 외국학회에 비한다면 기반이 아주 약한 편이라고 말한다.

『한국균학회는 균학을 연구하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학술적인 교류를 꾀함으로써 학문적인 발전은 물론 상호간의 친선도모를 목적으로 1973년에 설립됐습니다.』 朴회장은 초기에 백여명으로 시작한 학회가 이제는 4백여명으로 늘어났으며 특별회원도 60여개社에 이른 만큼 어느 정도 기반이 닦여졌으므로 이제부터는 국제교류에도 힘써 외국의 저명학자를 초빙해 세미나 등을 수시로 열고 국제균학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라고 설명한다.

『국제균학회의 국내유치는 아직은 시기상조이지만 수년내에 한국에서 치를수있도록 실력배양과 함께 저변확대에도 힘쓸 작정입니다.』 朴회장은 앞으로 회원간의 人和에도 힘써 회원들의 만남의 기회를 자주 만들어 이 분야 발전에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한다.

〈權光仁記〉

